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유지후¹, 고정훈^{2*}

¹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박사과정, ²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학과장

Effect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Physical Satisfaction on Academic Adjustment :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Ji-Hu Yu¹, Jeong-Hoon Ko^{2*}

¹Doctor's course in Beauty Arts, Eastern Culture Graduate School

²Dean, Beauty Arts, Eastern Culture Graduate School

요약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 변인에 있어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연구대상은 8차 다문화청소년패널(MAPS) 자료를 활용하여 조사시점에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064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25.0으로 측정변수의 기술통계, 상관관계 및 경로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둘째,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은 완전매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과의 관계에서 친구관계는 부분매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다문화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와 프로그램개발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제어 : 다문화 청소년, 신체적 만족도, 학업적응,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the mediating effects of self-esteem and peer relationship in the effects between physical satisfaction and academic adaptation of multicultural youth. The subjects of the study were 1,064 first-year high school students at the time of the survey using the 8th Multicultural Youth Panel (MAPS) data. For data analysis, descriptive statistics, correlations, and path analysis of measurement variables were carried out using SPSS 25.0. According to the analysis, first, multicultural youth's body satisfaction has a positive effect on academic adaptation, and second, self-esteem is completely mediated in the relationship between body satisfaction and academic adaptation. Third, the relationship between multicultural youth's body satisfaction and academic adaptation has been partially mediated. The results will be used to develop basic data and programs to support healthy growth of multicultural youth. These results can be used to develop basic data and programs to devise support measures for healthy growth of multicultural youth.

Key Words : Multicultural Adolescents', Physical Satisfaction, Academic Adjustmen, Self-esteem, Peer Relationship

*Corresponding Author : Jeong Hoon Ko(jh_ko@dongbang.ac.kr)

Received September 7, 2021

Revised October 6, 2021

Accepted October 20, 2021

Published October 28, 2021

1. 서론

국가 성장의 원동력은 건강한 청소년의 성장에서 출발한다.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라는 것은 국가의 미래를 예측하는 요인이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은 건강한 성장보다 학업의 문제, 자신의 외모의 문제 등으로 인해 자신의 신체에 대한 낮은 만족으로 인해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1]. 이러한 상황은 다문화 청소년에 대한 '청소년은 미래의 주인공이다.'라는 말을 어색하게 하는 실정이다.

학교는 모든 청소년의 적응을 위한 물리적인 공간으로 친구들과 관계형성도 이루어지는 장소이다. 다문화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이 이루어지는 공간에서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형성이 이루어지고 이러한 긍정적인 관계형성을 통해 높은 자아존중감도 형성하여 학교적응을 증진시킬 수 있다[2].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은 학교적응 과정에서 적절하지 못한 친구관계를 형성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학업부적응, 즉, 학습에 대한 흥미보다 포기를 경험하게 된다[3]. 이에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를 고려하여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위한 적극적인 논의와 정책적 개입이 이루어져야겠다.

건강한 청소년은 미래의 희망이 되고 있어 건강한 청소년 결정요인에 대한 고찰이 필요하다. 건강한 청소년의 결정은 신체적 건강, 정서적 건강, 사회적 건강 등으로 다문화 청소년도 예외는 아니다. 이러한 결정요인의 충족이 청소년 자신을 성장시킬 수 있으며, 건강한 청소년 성장은 높은 자아존중감과 긍정적인 친구 관계도 전제되어야한다. 특히 신체적 건강은 정서적 건강과 사회적 건강의 유지 또는 회복을 위한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높은 신체만족도가 전제되어야 한다.

신체만족도는 겉으로 보여주는 자신의 용모와 관련된 만족도로 자신의 외모에 대한 이미지와 타인이 자신의 외모에 대한 주관적·포괄적인 이미지의 평가를 의미하며, 자신의 외모에 대한 만족도는 사회·문화적 맥락, 사회적 기준의 영향을 받게된다[4,5].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들은 겉으로 보여주는 외모의 차이로 인해 친구로부터 따돌림, 편견 등에 의해 심리적 불안의 경험은 물론, 학교 내에서 부정적인 친구관계 형성과 학교적응의 어려움도 경험하게 된다[6].

다문화 청소년의 외모의 차이에서 비롯된 낮은 신체

만족도는 학교적응의 어려움과 성장을 위한 자아존중감도 경감시키는 요인이 되고 있어[6],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증진을 위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또한 자아존중감은 영유아, 아동기 후기 단계를 보내면서 친구, 부모, 교사 등 의미있는 타인과의 관계를 통해 청소년들의 반응과 평가에 의해 재조명되면서 주목이 필요하다[4].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감소는 친구관계 위축과 관계 형성보다는 은둔하려는 태도를 조장하기 때문이다. 이렇듯 신체만족도, 친구관계, 자아존중감은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변인으로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미래를 결정하는 요인이기 때문에[7] 지속적인 논의와 고찰이 요구된다.

다문화 청소년의 부적절한 친구관계 형성은 친구로부터 지지와 독려보다는 자아존중감의 감소 요인으로 작동하게 된다. 자아존중감의 감소는 학교적응도 어렵게 하여 건강한 성장을 저해하게 된다. 그러므로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다문화 청소년을 고려하여 자신의 신체에 대한 신체만족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학제적관점의 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이러한 관심과 논의는 다문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 증진과 긍정적 친구 관계형성과 안정적인 학교적응을 돕는 정책적 개입방안으로 귀결될 것이다.

또한 바람직한 물리적인 학교환경은 급속히 변화되어 청소년들의 다양한 신체, 심리, 사회적 변화로 경험하는 스트레스와 불안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지체계의 역할을 한다[4] 특히 학교에서의 친구관계는 학교적응의 중요한 요인은 물론이며[2,8] 자아존중감 증진을 위한 촉매의 역할도 하여 학교적응도 돕는다[8].

청소년의 긍정적인 친구관계는 학교적응의 부적응보다 적응을 도와 활기찬 청소년기를 보낼 수 있도록 도와준다. 활기찬 청소년기는 건강한 신체와 다양한 활동 참여, 목표달성을 위한 학교적응을 증가시킨다. 그러나 다문화 청소년은 문화와 언어 등의 차이로 적절하지 못한 친구관계 형성으로 학교적응의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대처도 어려워 긍정적인 친구관계가 어려운 악순환을 경험하고 있다[8]. 이처럼 다문화 청소년의 부정적인 친구관계는 학교부적응의 요인이 되고 있어[9] 다문화 청소년의 지속적인 증가를 인식하여 학교적응을 저해하는 요인에 대한 지속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교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한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해 연구문제를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는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는가? 둘째, 다문화 청소년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은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친구관계는 매개효과를 나타내는가?

2. 연구방법

2.1 연구모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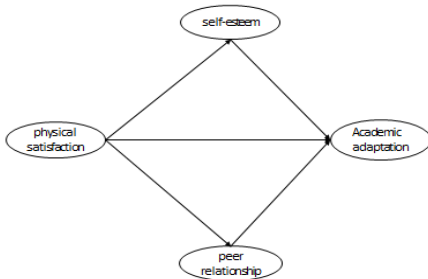


Fig 1. Research Model

2.2 자료수집 및 조사대상

본 연구의 연구모형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8차(2018) 자료를 사용하였다.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는 다문화 청소년의 발달을 종단적으로 추적하며 비다문화청소년과의 비교로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조사되었으며, 설문조사는 CAPI(Computer Assisted Personal Interviewing)기법을 통해 진행되었다. 본 연구의 대상에 적합한 다문화 청소년은 조사에 응답한 다문화 청소년 1,635명 중 고등학교 1학년에 재학 중인 1,064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2.3 측정도구

2.3.1 독립변수: 신체만족도

본 연구의 독립변수인 신체만족도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신체만족도 척도는 Song[17]이 개발한 자아개념 척도에서 아동을 위해 보다 쉽게 수정한

Han[19]의 수정 척도를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은 총 6 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2문항은 역문항으로 확인되어 재코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문항은 리커트 4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신체만족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 계수는 .800로 나타났다.

2.3.2 매개변수 1: 자아존중감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자아존중감을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자아존중감 척도는 Rosenberg[20]가 개발한 문항들을 발췌하여 다문화패널에서 사용된 문항들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측정 문항은 총 9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그중 4문항은 역문항으로 확인되어 재코딩하여 분석하였고, 모든 문항은 4점 리커트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 계수는 .881로 나타났다.

2.3.3 매개변수 2: 친구관계

본 연구의 매개변수인 친구관계를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친구관계 척도는 Kim[23] 연구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친구관계가 좋다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 계수는 .917로 나타났다.

2.3.4 종속변수: 학업적응

본 연구의 종속변수인 학업적응을 측정하기 위해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에서 사용한 측정 문항을 사용하였다. 학업적응 척도는 김정남(2013)이 개발한 척도 문항을 사용하였다. 측정 문항은 총 4문항으로 이루어졌으며, 리커트 5점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학업적응을 잘하는 것을 의미한다. 측정에 사용된 문항들의 내적일관성인 Chronbach's α 계수는 .862로 나타났다.

2.4 자료분석방법

본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주요 변인들의 특성, 변인 간 관련성,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관계,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SPSS

WIN 25.0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구체적인 분석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주요 변인들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술통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둘째, 주요 변인들의 관련성을 파악하기 위해 피어슨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Kenny(1986)의 3단계 회귀분석으로 실시하였다. 넷째,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간접효과 검증을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다.

3. 연구결과

3.1 기술통계 분석

주요 변인의 기술통계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은 리커트 4점 척도, 친구관계와 학업적응은 5점 척도로 측정하였는데, 조사대상자의 신체만족도 평균값은 2.919(SD=.516)으로 보통 이상의 만족감을 느끼고 있음을 확인했고, 조사대상자의 자아존중감 평균값은 3.815(SD=.670)로 자아존중감이 높은 편임을 확인했다. 조사대상자의 친구관계 평균값은 4.063(SD=.721)으로 친구관계가 좋음을 확인했고, 학업적응의 평균값은 3.485(SD=.787)로 보통 이상으로 적응을 잘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한, 각 변인의 왜도와 첨도의 값을 통해 정규성이 확보되었는지 분석한 결과, 각각 절대값 3과 10을 넘지 않아 정규분포를 이루는 것을 확인했다.

Table 1. Descriptive statistics

Variable	Min	Max	Mean	S.D	Skewness	Kurtosis
①	1.17	4.00	2.919	.516	.101	-.153
②	1.00	5.00	3.815	.670	-.305	.194
③	1.00	5.00	4.063	.721	-.643	.832
④	1.00	5.00	3.485	.787	-.257	.156

①Physical satisfaction ②Self-esteem ③Peer Relationship ④ Academic adaptation

3.2. 상관관계 분석

주요 변인의 관련성을 확인하기 위해 피어슨의 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는 Table 2와 같다. 먼저, 독립변인인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r=.681, p<.01$)과 친구관계($r=.419, p<.01$), 학업적응($r=.285,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자아존중감은 친구관계($r=.507, p<.01$), 학업적응

($r=.417,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매개변인인 친구관계는 학업적응($r=.420, p<.01$)과 정(+)적인 상관관계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각 변인 간 상관관계수가 높게 나타나지 않아 다중공선성의 문제는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2. Correlation among Major Variables

Variable	coefficient			
	①	②	③	④
①	1			
②	.681**	1		
③	.419**	.507**	1	
④	.285**	.417**	.420**	1

* $p<.05$, ** $p<.01$ ①Physical satisfaction ②Self-esteem ③Peer Relationship ④Academic adaptation

3.3 매개효과 검증

3.3.1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Model 1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Model 2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Model 3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검증결과는 Table 3과 같다. Model 1에서 신체만족도($\beta=.667, t=28.250, p<.001$)는 자아존중감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l 1의 설명력은 46.2%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신체만족도($\beta=.515, t=8.263, p<.001$)는 학업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l 2의 설명력은 11.9%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자아존중감($\beta=.398, t=10.417, p<.001$)은 학업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학업적응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20.4%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Model 1의 독립변수는 매개변수에 유의하게 영향을 미치고, Model 2에서도 독립변수는 종속변수에 유의한 영향 관계를 확인할 수 있다. Model 3에서 매개변수는 종속변수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영향을 미쳤지만, 독립변수인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으로 인해 Model 2에서의 영향력이 사라졌다. 따라서 자아존중감은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완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Table 3. Mediating Effec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gender	-.013	.031	-.010	-4.21	.079	.047	.050	1.694	.085	.044	.054	1.919
mother's education	.055	.033	.040	1.674	.222	.049	.137	4.516***	.196	.047	.121	4.196***
father's education	-.007	.032	-.005	-.210	.105	.048	.066	2.158*	.108	.046	.068	2.338*
hoped education level	.103	.042	.058	2.437*	.267	.064	.128	4.208***	.219	.061	.105	3.618***
body satisfaction	.862	.031	.667	28.250***	.378	.046	.250	8.263***	-.024	.058	-.016	-.410
self-esteem									.466	.045	.398	10.417***
F		174.238***				27.355***				43.296***		
R ²		.462				.119				.204		
adjR ²		.459				.114				.199		
Durbin-watson		1.852				1.921				1.896		

*p<.05, **p<.01, ***p<.001 Model 1: physical satisfaction→Self-esteem, Model 2: physical satisfaction→Academic adaptation, Model 3: physical satisfaction→Self-esteem→Academic adaptation

3.3.2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의 관계에서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Baron& Kenny(1986)가 제안한 3단계 매개효과 검증방법으로 분석하였다. Model 1은 독립변수가 매개변수에 미치는 영향, Model 2는 독립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 Model 3은 매개변수가 종속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검증결과는 Table 4와 같다.

Model 1에서 신체만족도($\beta=.417$, $t=14.361$, $p<.001$)는 친구관계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l 1의 설명력은 18.7%로 나타났다. Model 2에서 신체만족도($\beta=.515$, $t=8.263$,

$p<.001$)는 학업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Model 2의 설명력은 11.9%로 나타났다. Model 3에서 친구관계($\beta=.345$, $t=11.178$, $p<.001$)는 학업적응에 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체만족도는 친구관계로 인해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이 2단계보다 약간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3단계에서 독립변수가 종속변수를 21.5%로 설명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보면, Model 1의 독립변수와 매개변수의 관계, Model 2의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 Model 3의 매개변수와 종속변수의 관계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Table 4. Mediating Effect

Variables	Model 1				Model 2				Model 3			
	B	S.E	β	t	B	S.E	β	t	B	S.E	β	t
gender	.146	.041	.101	3.534***	.079	.047	.050	1.694	.024	.044	.016	.551
mother's education	.056	.043	.038	1.291	.222	.049	.137	4.516***	.201	.046	.124	4.327***
father's education	-.004	.043	-.003	-.097	.105	.048	.066	2.158*	.106	.046	.067	2.320*
hoped education level	.122	.056	.064	2.171*	.267	.064	.128	4.208***	.222	.060	.106	3.688***
body satisfaction	.582	.040	.417	14.361***	.378	.046	.250	8.263***	.160	.047	.106	3.386**
friendship									.374	.033	.345	11.178***
F		46.551***				27.355***				46.404***		
R ²		.187				.119				.215		
adjR ²		.183				.114				.211		
Durbin-watson		1.973				1.921				1.900		

*p<.05, **p<.01, ***p<.001, Model 1: Physical satisfaction→Peer Relationship, Model 2: Physical satisfaction→Academic adaptation, Model 3: Physical satisfaction→Peer Relationship→Academic adaptation

또한, Model 2에서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력의 값이, Model 3에서는 매개변수인 친구관계로 인해 영향력이 줄었다. 이를 토대로 친구관계는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부분 매개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3.3.3 효과분해 검증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를 매개로 한 각각의 경로를 분해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신체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직접효과($\beta=.667, p<.001$), 자아존중감은 학업적응에 직접효과($\beta=.398, p<.001$), 자아존중감의 간접효과($\beta=.265, p<.001$)가 확인됐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신체만족도는 친구관계에 직접효과($\beta=.417, p<.001$), 친구관계는 학업적응에 직접효과($\beta=.345, p<.001$), 친구관계의 간접효과($\beta=.144, p<.001$)가 확인됐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가 나타났다.

Table 5. Mediated Effect Verification

Path	Total effects	Direct effects	Indirect effects
① → ②	.667***	.667***	
② → ④	.398***	.398***	
① → ② → ④	.249**	-.016	.265***
① → ③	.417***	.417***	
③ → ④	.345***	.345***	
① → ③ → ④	.250***	.106**	.144***

*p<.05, **p<.01, ***p<.001 ①Physical satisfaction ② Self-esteem ③Peer Relationship ④Academic adaptation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검증하기 위해 Sobel test를 실시하였으며, 분석결과는 Table 6과 같다.

Table 6. Sobel test

Variables	Sobel test	p
Physical satisfaction →Self-esteem →Academic adaptation	9.704	.000 (p<.001)
Physical satisfaction→Peer Relationship →Academic adaptation	8.941	.000 (p<.001)

*p<.05, **p<.01, ***p<.001

Sobel test 결과, 신체만족도와 자아존중감, 학업적

응의 관계에서 z값은 9.704, p<.001로 통계적으로 이는 자아존중감이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신체만족도와 친구관계, 학업적응의 관계에서 z값은 8.941, p<.001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나타났다(p<.001). 이는 친구관계가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과의 관계에서 매개효과가 유의미하다는 것이 확인됐다.

4.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8차 자료를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 자료분석 결과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규명하였다. 본 연구결과가 나타낸 바를 논의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정적인 상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리고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변인도 정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친구관계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높은 신체만족도는 학업적응을 증가시킨다는 선행연구[4, 6, 10]와 맥을 같이한다. 즉, 다문화 청소년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은 학교생활도 가능하게 하여 학업적응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이다. 또한 자아존중감 변인도 다문화 청소년의 학교적응을 돕는 요인으로[2, 7, 9] 선행연구와 일치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자신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되어 학업부적응을 예방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뿐만 아니라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인 친구관계도 학업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9,11,12]와 유사한 결과로 확인되었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의 완전매개효과를 확인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은 겉으로 보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만족도는 자아존중감에 영향을 주어 학업적응 증진은 물론 활기찬 학교생활도 가능하게 한다. 이는 자신의 신체에 대한 높은 만족은 자아존중감 증진은 물론 학교생활 적응을 돕는 요인으로 밀접히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즉, 학업적응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 확인되어 선행연구[1, 3, 4]와 맥을 같이한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

치는 영향에서 친구관계의 부분매개효과를 확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선행연구와 일치한 결과이다[4, 8, 9, 12]. 다문화 청소년들의 친구들과 긍정적인 관계형성은 학업적응 증진으로 귀결된다. 또한 친구와 긍정적인 관계는 사회적 기술습득도 도와 건강한 사회구성원성장을 돕는 촉매제의 역할임을 유추할 수 있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가 학업적응에 미치는 영향에서 자아존중감 변인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 검증은 Baron & Kenny가 제안한 Sobel test를 수행하여 간접효과의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를 매개로 한 각각의 경로를 분해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자아존중감의 Z값은 9.704로 확인되었으며, 친구관계도 Z값이 8.941로 확인되어 효과분해 검증의 이상 없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다문화 청소년은 신체만족도, 자아존중감, 친구관계 변인에 의해 학업적응이 이루어짐으로 나타나 지속적인 논의와 정책적 개입을 시사한다.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이 제언한다.

첫째,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 증진을 위한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의 사회통합을 제언한다. 이들의 사회통합을 위해 '청소년 교류센터 서포터즈' 프로젝트를 실시한다.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이 프로젝트에 함께 참여함으로써 서로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에 대한 외모, 문화 등의 차이에 대한 불인정보다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르지 않다는 긍정적 인식을 증진시킬 것이다.

아울러 문화적, 언어적 등의 차이로 다문화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어려운 상황극복을 위해 가족복지의 정책적 개입도 함께 실시하여 사회통합의 극대화를 도모한다.

둘째,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을 돕는 교육프로그램 지원을 제언한다.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 증진을 위한 다문화 교육프로그램 개발을 통해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 증진 도모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학습부진이 학습에 대한 흥미를 잃게 함은 물론이며,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부적응 상황도 초래하여 학교이탈도 조장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업적응을 위한 개인적, 환경적 요인을 체계적으로 모색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을 위한 독려와 적극적인 사회적 지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셋째, 다문화 청소년의 긍정적 친구관계 형성을 위한

동아리 활동 활성화를 제언한다. 비다문화 청소년과 다문화 청소년이 주 1회 동아리 활동을 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필요하다. 농구, 댄스, 각국의 문화체험 활동 등의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여 이들이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상호 간의 친밀한 관계로 발전할 기회를 제공해야 할 것이다. 친밀한 관계형성을 통해 학업적응의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면 다문화 청소년과 비다문화 청소년이 서로 협력하여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을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들은 동아리 활동에 참여함으로써 자신의 취미와 특기, 소질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자기표현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어 동아리 활동의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넷째, 다문화 청소년의 리더십 증진을 위한 적극적 개입을 제언한다. 비 다문화 청소년보다 소극적인 성향을 갖는 다문화 청소년은 자신의 잠재적인 능력을 인식하기보다는 부족한 존재로 인식할 우려가 있다. 이처럼 자신에 대한 부족한 존재로 인식보다는 자신감 있는 리더십 증진을 위한 '청소년통합리더 양성' 프로그램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청소년통합리더 양성 프로그램 참여는 다문화 청소년의 리더십을 증진시킬 수 있는 기제가 될 것이다.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과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검증하여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업적응을 돕는 요인을 분석하여 사회복지적 개입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연구의 의의를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 패널조사(MAPS) 8차 자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는 한계를 갖는다. 다문화 청소년 패널은 연구집단을 대표하는 표본이라는 강점을 갖는 반면 다양한 변인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간단한 형태의 척도를 사용하여 수집된 자료를 분석하였다는 단점을 갖는다. 따라서 후속연구는 다문화 청소년들의 학교적응을 돕는 다양한 요인분석을 위한 질적연구방법을 제안한다. 다문화 청소년을 연구참여자로 수집된 자료는 다문화 청소년의 학업적응을 돕는 사회적 지원이 무엇인지 다양한 측면에서 확인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다문화 청소년의 신체만족도와 학업적응 간의 관계에서 자아존중감, 친구관계의 매개효과를 탐색한 본 연구는 다문화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지원방안을 강구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REFERENCES

- [1] Y. M. K.o & J. Y. Lee. (2009). The Factors in relation to School Adjustment for Children of the Multi-Cultural Family. *The Korea Journal of Youth Counseling*, 17(1), 49-63.
- [2] S. J. Jeon & H. M. Yoon (2013). Effects of Neglect, Acculturative Stress, and Self-Esteem on School Adjustment of Adolescents of Multi-Cultural Family. *Journal of School Social Work*, 24, 153-179.
DOI : 10.14400/JDC.2014.12.4.33
- [3] S. B. Oh. (2006). The Implication of the 'Kosian' Case for the Multicultural Education in Korea. *Korean Journal of Sociology of Education*, 16(4), 137-157.
- [4] Y. M. Kim. (2020). A Longitudinal Study of the Causal Relationship between Friend Support, Body Satisfaction and Self-esteem of Multicultural Children. *Parenting Policy Research*, 14(2), 55-74.
- [5] S. S. Kim. (2019). A Qualitative Case Study on Social Support that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y Perceive and Experience. *Asia-pacific Journal of Multimedia Services Convergent with Art, Humanities, and Sociology*, 9(12), 963-972.
- [6] B. R. No., J. H. Jung., N. Y. Choi & K. Y. Lee. (2019). The Longitudinal Effects of Multicultural Adolescents' Appearance Satisfaction and Korean Language Skills on School Adjustment and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Family and Environment Research*, 57(3), 407-417.
DOI : 10.6115/fer.2019.030
- [7] J. M. Jeong. (2015). The Impact of Social Support on School Adjustment among Multicultural Children in Korea: Testing the Mediating Effect of Self-esteem. *Child Welfare Research*, 13(3), 97-115.
- [8] H. J. Kim., J. W. Choi & J. H. Lee. (2012). Juvenile's Inter-Relationship and Adapting School Life: Focus on Moderating Effect of Self-Esteem. *Eurasian Studies*, 9(1), 273-298.
- [10] Y. H. Oh & H. N. Lim. (2014). A Study on School Adaptation of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through Participation in Youth Activity Programs : Focus on Activities of the National Youth Center. *Multiculture & Peace*, 8(1), 143-172.
- [9] H. J. Hong & D. H. Ahn. (2021). Exploring Multicultural Families' Background Characteristics, Parental Support, Peer Relationship, School

Adjustment, and Life Satisfaction of Adolescents. *Journal of Multiculture and Education*, 10(2), 111-139.
DOI : 10.30974/kaice.2021.10.2.005

- [10] J. H. Kim & S. H. Hong. (2021). Estimating the Longitudinal Changes in Anxiety of Korean Adolescents and Investigating the Ecological Factors on the Changes Via Piecewise Growth Modeling. *Education Method Research*, 224(2), 405-425.
DOI : 10.17927/tkjem.2012.24.2.405
- [11] H. M. Kim & H. J. Moon. (2013). School Adjustment: Comparing Children from Multicultural Families and Children of Non-Multicultural Families. *Korean Academy Of Social Welfare*, 65(4), 7-31.
- [12] E. H. Kim., J. E. Seo & C. R. Nho. (2019). A Longitudinal Study of Causal Relationships among Adolescents' School Adjustment, Parenteral Supervision and Life Satisfaction. *Journal of Youth Welfare*, 21(2), 97-121.

유지후(Ji -Hu Yu)

[정회원]



- 1989년 2월 : 공주사범대학교 미술교육학과(학사)
- 2012년 2월 : 한양대학교 아동학과(학사)
- 2015년 2월 : 서울사회복지대학원대학교 사회복지학과(사회복지학석사)

· 2019년 2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박사과정
· 관심분야 : 교육, 예술, 복지, 가족, 청소년, 아동
· E-Mail : iga1240@hanmail.net

고정훈(Jeong-Hoon Ko)

[정회원]



- 2005년 2월 : 서경대학교 산업디자인학과/철학과 (문학/미술학사)
- 2008년 2월 : Central Saint Martins MA Communication Design(MA Communication Design)

· 2013년 2월 : 홍익대학교 국제디자인전문대학원 콘텐츠융합디자인학과(디자인학 박사)
· 2014년 3월 ~ 현재 :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뷰티예술학과 학과장
· 관심분야 : 교육, 문화예술
· E-Mail : jh_ko@dongbang.ac.kr